

제 35회 목포시의회 1차 회의록

1. 일 자 : 단기 4288년 3월 24일

2. 개의상황 :

참석 24명

불참 이소규, 손백수, 김남현, 문태호, 김길환, 이문길

3. 개의선언 : 의장 오전 10시 45분

4. 보고사항 :

- 1) 제 34회 2차 회의록 낭독
- 2) 감세 교섭위원회 결과보고
- 3) 동 자치운영에 관한 교섭결과 보고
- 4) 신성모 해사위원장에게 감사문 발송보고
- 5)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관한 건의서 발송 보고
- 6) 해무청유치 운동활동 상황보고 (서울, 제주도)
- 7) 석천호 진상조사 개인별 보고
- 8) 연동 제방 소송 관계 결과보고

◆ 부의안건

1. 단기 4287년도 제 2회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의 건
2. 단기 4287년도 제 2기분 특별부과금 부과율 결정의 건
3. 단기 4287년도 일시차입의 건

◇ 박찬규 의장

- 개회선언에 이어 전차 회의록 낭독하겠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진행 하겠음

◇ 진복춘 의원

- 수도권 누수에 대한 재낭독을 요청.

◇ 박찬대 서기

- 재차 낭독

의의가 없음으로 통과

※ 감세교섭위원회 결과 보고

의원 이재홍 김삼섭 오세일 김영완 각 의원과 상도하여 감세운동 및 동자
치행정에 대한 타합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음.(속기록 참조)

※ 연동제방 소송관계결과 보고

※ 신성모씨에게 감사문 발송보고

※ 지방자치법개정 안 에 관한 건의서 발송보고

이상 서기 박찬대로부터 보고가 있었음

※ 해무청 설치 운동 상황보고

- 서울주재 이소규 의장으로부터 도착한 활동보고 3인의 결과보고가 끝난다
음 나달수씨로부터 출장근황에 대한 일체설명의 내용발언이 있었음.

부의장 이소규씨의 서신보고 및 나달수씨의 근황보고가 끝난 다음 의원 김
창희씨로부터 제주도 출장하여 해무청설치에 대한 활동상황보고가 있었음(속
기록 참조)

※ 김경현의원 11시 50분 참회

※ 석천호 관계 조사보고

의원 정응표 해무청설치에 있어 적극노력을 하여준 정중섭 국회의원, 이소

규 부의장, 김성호, 유옥우, 조병문, 신행용 각 의원에게 감사문의 전보를 보낼 것을 긴급동의(재청)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

◇ 진복춘 의원

- 석천호 관계로 수선을 한다면 백만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운영에 있어 건설과장의 답변여하

◇ 김영완 의원

- 회의규칙이 엄연히 사려있는 이상 본회의의 가결을 본 후 답변할 것을 발언하였음(속기록참조)

◇ 이복주 의원

- 진복춘의원의 석천호에 대한 발언내용에 차위가 있단 것과 책임소재가 총무과장에게 있단 것을 발언하였음(속기록참조)

◇ 진복춘 의원

- 수선비가 100만원이상이 필요한데 이안이 없다면 엇더컴 할것인가 이복주의원의 답변을 요구

◇ 이복주 의원

- 선박구입에 있어서 책임자체를 명백키할 것이며 선박을 수선하여 사용하도록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음 (속기록참조)

◇ 김영완 의원

- 석천호에 대하여 의론을 중지할 것을 동의

◇진복춘 의원

- 기계부분품 구입에 대하여 발언이 있었음(속기록참조)

◇ 이재홍 의원

- 석천호운영재건위원회 구성할 것을 개의. 의원은 진복춘 명남철 김팔용의

원

◇ 김영완 의원

- 재건위원으로 정응표, 오세일, 김팔용 의원을 지명할 것을 재개의

◇ 박찬규 의장

- 재개의부터 표결하겠음 (가 9, 가결)

◆ 부의안건

단기4287년도 제2회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입출추가 경정예산

◇ 이복주 의원

- 변사돈에 대한 업자들의 폭리와 이에 대한 시정문제를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적의추 진하여 달라는 긴급동의가 있었음. (재청, 삼청)

◇ 박연태 과장

- 이 의원의 발언내용에 있어 대책을 취하겠음

◇ 박찬규 의장

- 표결하겠음 (가 10, 가결)

◇ 김영완 의원

- 노무자 유가족에 대하여 각 시의회에 건의문을 발송하고 동일보조를 취하도록 하여 문교사회, 보건부 각 장관에게 건의문발송할 것을 긴급동의 (재청) (속기록참조)

◇ 이복주 의원

- 학비면제에 대한 교육감의 의사여하 (속기록참조)

◇ 교육감

- 다소학교서 재유제로 하고 있다. 중 고등학교는 상대가 없으며 또 수가 많은 까닭으로 불여의하다

◇ 김삼성 의원

- 지원한 것에 한할 것인가,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가족에 한할 것인가 또는 앞으로는 어떠한게 할 것인가

◇ 박찬규 의장

- 이무 일선에 나가서 전사한 유가족에 한한 것이라 표결하겠음 (가 12표, 가결)

- 휴회선언 의장

(하오 1시 10분)

- 속개선언 의장

(하오 2시55분)

◇ 박찬규 의장

- 교육위원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음

◇ 진복춘 의원

- 각 국민학교에서 2부제 3부제로 수용한 다면 결국이 중앙 국민학교를 증축하자는 문제가 대두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 교육감

- 설명이 있었음 (속기록참조)

◇ 정응표 의원

- 4286년도 특별부과금이 443만원으로 감한 것은 그 정수에서 받다가 못받을 것 같아서 감하였는데 예산을 통과만 시키고 징수하지 못하는 세금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통과할 것인가 이것은 참 곤란한 문제다.

◇ 서무과장

- 이것은 예산상조치이지 미수를 결손처분한 것이 아니다. (속기록참조)

◇ 정응표 의원

- 그리고 이 특별부과금을 논의한다니까 목포시내에서 여러 가지 여론이 비등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부방침이 6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이상대로 추진된다면 대단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목포시민의 고충이 심한데 여기에다가 목포시에서 하는 부과가 지금4기분이 1,900만환을 부과하여 놓고 거기다가 부과세가 950만환이 요새 교지서를 돌리고있는 호별세가 1,400만환 거기에다가 교육세가 1,600만환 또, 소득세가 2,000만환을 날파하여 놓은 이때 우리 목포시에 환경이 아무리 좋은 호경기라고 하더라도 우리한국의 실정은 이때가 제일 곤란한때 입니다. 문자 그대로 춘궁기인데 8,000만환이란 세금고지서를 시민에게 발부한다는 것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이때 또 1,600만환을 부과하면 과연 시민들이 그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러한 세금은 배세할 때 다른 조치는 없이 하였는가 목포시장은 특별부과금을 날파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담세력이 있다고 생각 하는가

◇ 시장

- 시민의 부담에 있어서는 의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동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정부방침이 그렇지 않으므로 국민학교 교육에 있어선 우리 시에서라도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반 정부에서는 6개년 계획으로 국민학교의 2부 교육을 전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우리 목포에서도 이에 호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시민의 담세력으로 말하면 대단히 무거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충분히 숙고하시어서 심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재홍 의원

- 지금 학교를 증축한다는데 대해서 누구나 찬성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돈을 거출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 극도로 쇠퇴하고 있는 목포시민이 지금 이 마당에서 1,200만환이라는 돈이 나와서 학교를 지을 수 있는가. 할 것이 문제이며 역시 거반 년도 분에서도 4백 몇 십만환이 미수로 되어 있는데 또, 1,200만환을 통과하여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또, 중앙국민학교는 6·25 사변으로 파괴된 학교로써 전재부흥사업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듣는바에 의하면 후방 KOAC에서 중앙국민학교에

36교실을 지을 자재를 받는다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방금 제안자측의 설명에 의하면 교육예산의 기정예산 137만환에 일천만환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어찌되는가. 만약 이렇게 해서 여유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금년에 6개 교실을 지을 것을 34개 교실만을 지을 수 없는가 또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몇 교실 만들고 지금 이 시기를 면해서 몇 달 후에 몇 교실을 지을 수는 없는가. 여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 정응표 의원

- 전반 신문에 의하면 6개년 계획으로써 교실을 많이 지으는데 거기서 중앙 방침으로써는 지방에서 55%를 부담하고 정부에서 4할 5부를 부담한다고 %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을 전부 지방부담에서 중앙에서 받을 수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교육감 원조사재를 받는데도 기본자금이 있어야 되며, 중앙에서 45% 정도를 보조를 한다는 통첩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국민학교는 지금 70개 교실이 있으며 CAC에서 13교실을 지을 수 있는 자재를 원조 받아 가지고 있으며 88년도 분을 문정과를 통하여 신청하였다. 그리고 CAC를 통하여 36교실분을 신청하였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중앙국민학교가 주가 되어 작년 9월부터 엇그제까지 계승 노력 중에 있는데 이것이 비공식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성직불안이요 폐직원망 격이 되어 있다. 그리고 당사자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낙착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 미국인들을 통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망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예산이 통과되고 그 자재가 낙착이 된다면 이 예산은 부지구입에 노력하겠다.

◇ 김삼성 의원

- 중앙국민학교 증축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원 각위가 통탄히 느낀 바 동일합니다. 지금에서 예산면을 본다면 거년도 수업에서 443만환의 미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민의 부담이 1,000여만환인데 이 세금을 우리 시민이 부담할 수 있다고 보는가. 또 지금 객지에서 절량농가가 색출하고 있다는데 우리 목포에도 결식가정이 없는가. 산업과장이나 사회과장은 이러한 일을 조사하여본 일이 있는가.

◇ 서무과장

- 거년도 총액의 징수실정을 본다면 전부 합해서 57%정도이다

◇ 사회과장

- 절량농가에 대한 구호양곡을 480석 할당받아 가지고 각 동회에 배급하고 있다.

◇ 김창현 의원

- 교육청 특별부과예산으로 중앙국민학교를 증축한다는데 대해서는 목포시민으로써 누구나 찬성할 것이다. 대. 그러나 지금 현재 각종 세금이 목포시민에게 8천만원이 부과되었는데 또 1,200만원을 부과한다면 9,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목포시세대가 1,700세대에서 징수한다 하더라도 1개 세대에 6,000환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본바와 같이 작년도 미수금이 상당한데 이번에 이 예산을 또 통과시킨다면 이를 징수할 수 있는가. 또한 이 예산이 통과된 후 중앙에서 보조를 받는다면 이 예산을 대지구입 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였는데 그러면 그 총액이 전부가 들어 갈 것인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예산상으로 아무리 떠들어 보았자 쓸 데 없습니다. 오직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36교실 지을 자재를 원조 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가감할 수 없는가.

◇ 교육감

- 거년도분의 완전징수는 자신 없다.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본다면 85, 86 양년 4기로 해서 1기에 약 250만원 정도 징수되었는데 미납자를 조사하여 본다면 대체적으로 다액자가 이주 또는 행방불명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면해서 다른 시기로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교육청에는 년 2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낙착이 되어 의무교육 6개년 계획에서 2년간을 교육세부과를 쉬어도 된다.

◇ 김경현 의원

- 문제가 학교문제가기 때문에 저도 돈은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깡통을 차더라도 교육건설은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발전시킴으로써 이 나라가 어둠의 길속에서 나와야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제 2세 국민을 육성하는데는 이 교육건설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막 속에서 공

부하고 있는 그 광경을 학부모들이 볼 때 그 가슴아픔은 실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로는 다액자들이 잘내지 않아요. 또한 우리가 4년 동안에 무엇하나 하여놓은 것 있습니까. 그러니 이 학교는 우리가 깡통을 차더라도 증축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토의하여야 하겠습니까.

◇ 김삼성 의원

- 거년도 미수가 443만환이며 그 징수율이 57%다. 그리고 앞으로 징수여부도 확실히 말할 수 없다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산을 통과하는데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사회과장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께 묻고싶은 것은 지금 목포시에는 농가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외(의외로) 사회과장 말씀은 절량농가에 대해서 400석의 식량을 보리로 상환하기로 하고 배급을 추진중이라고 말하였는데 그러면 목포시에 결식시민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시로써 조사하여본 일이 있는가.

◇ 임일남 의원

- 물론 교육문제이고 또한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대 사업을 실천에 옮기는 학교를 증축해가지고 아동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포시민의 담세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며 또 거년도분에서 상당한 결손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 이 특별부과금을 납기까지 몇 %나 징수할수 있으며 강권발동하여서는 얼마정도 징수할 수 있으며 전부 몇 %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김영완 의원

- 34회 의회때 국세감세위원으로 저희들이 사세청에 가서 시장님과 재무과장의 활동방향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이들이 들은 바에 의하면 참석기자들께서도 이 숫자들을 기록하지 말란 부탁이 있었음. 우리 목포에 금년 2월 말 현재 직접세 국세가 약 1억467만 5,312환이라는 것이 부과되었으며 금반의 호별세가 있고 또 여기에 교육세가 부과된다면 시민의 담세력이 그렇게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담세력 없는 부과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국민학교 생도들이 천막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앙국민학교만 그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전국각지에 그런 학교가

있으면 천막밑에서 공부를 하여도 중앙국민학교가 그년중학교 시험에 최고 득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이들이 더 강해집니다. 또 하나는 지금이 춘궁기를 당해서 영남지방에는 2만여의 절량농가가 있다는 설이 있는데 금년에 꼭 학교를 지어야 하겠는가. 현재의 춘궁기를 지나서 금년, 초가을에 지을 수는 없는가를 시장님이 숫자적으로 확실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 김경현 의원

- 김영완 의원은 교육건설을 하자는데 반대를 하고있는데 돈이 들어도 지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천막 밑에서 공부를 하여도 아동들의 성적이 제일 좋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지도하는 선생들이 우수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으면 시민들이 풀세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문제는 그때 해야합니다.

◇ 김영완 의원

- 김경현 의원의 말씀은 대단히 좋은 말씀이고 대단히 훌륭한 말씀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김경현 의원의 말씀을 조리있게 말씀하겠습니다. 김경현 의원이 놀랐는지 어쩐지 본 의원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아무런 기록도 없이 무조건 하고 짓자는 것은 안될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담세력있는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행정부에 확실성 있는 답변을 듣자는 것입니다.

또한 천막은 우리 목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아서 천막 중에서 공부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물론 천막에서 공부하고 있는 실정을 보는 학부형으로써는 누구나 이것을 볼 때마다 돈이라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시살림도 살림이지만 실질성있는 살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내소란>

◇ 정응표 의원

- 아까 교육감께서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36교실 분의 자재를 교섭 중에 있다. 또 이것이 일주일이면 가부가 결정된다니 그러면 저의 생각에는 그 자재가 낙착된다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일주일 후에는 그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하니까 이 예산 심의를 일주일 후에 통과하면 어떨까 하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 교육감

- 미국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일이라 이걸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작년 12월부터 1개월 후에 혹은 1주일, 2주일하고 밀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은 금월 30일 까지가 납기이니깐 기간 내에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자재가 획득된다면 2년 동안은 쉬어도 6개년 계획에 어긋남이 없을 것입니다.

◇ 이복주 의원

- 교육감에게 한마디 묻겠습니다. 실은 현지를 답사하였기 때문에 중앙국민학교의 실정 잘 압니다만 중앙국민학교의 상태를 한번 더 말씀하여주십시오. 또 만약 1,200만환의 특별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우리의 회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감

- 교실수가 11교실, 천막이 5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지가 30교실 분이므로 지금 현재 부족교실이 14개임으로 5학년까지 2부 수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시내 전체적으로 보아서 금년에는 80년도보다 4,000명이 증가될 듯 합니다. 그러니 5학년까지 2부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 사회과장

- 금년 춘궁기의 공공구호 대상자가 832명, 그 다음으로 곤란한 사람이 321명 de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정기적인 통장을 발부하여 작년 12월까지 주고 이외 긴급구호 대상자 2,500명까지 해서 주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현품이 없어서 1, 2, 3월 분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여수와 와 있다고 한다.

◇ 징수계장

- 본년도 제 2기분 호별세 징수가능이 3월 30일 까지에 50%를 징수하고 4월말 까지에 25%를 징수하여 4월말까지에는 75%를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 그리고 그 다음 거주이동으로 2할8부를 징수불가능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87년도 2기

분은 지금 현재 78%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 교육감

- 지금 이 시기를 피해서 다른 시기로 할 수 없는가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9월에 한다면 동절관계로 할 수 없다. 그러니 부득이한 일이다.

◇ 의장

- 정부보조를 받는데도 자율적인 예산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교육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위원회에서든 물론 감당력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통과하여 가지고 우리의회에서 회부할 것은 시장으로써 어느 정도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과할 것을 믿고 토의하여주십시오.

◇ 이재홍 의원

- 시간을 걸려서 이야기하여도 학교는 절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 학교는 필요하지만 납세력이 없다는 말뿐입니다. 시민의 부담없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자재를 얻어 가지고 학교를 짓자는 이러한 등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1,000만환 예산을 통과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그러나 자재를 받으려면 기본금이 필요하다하니 시민의 부담으로 생각하면 통과할 수 없고 자재를 받기 위해서는 통과하여야 하겠으니 곤란합니다. 그러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문제가 중대하기 때문에 물론 3월 30일 이내에 가부간 결정을 보아야 하겠으니 앞으로 5일 내에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작년도 분에서 443만환이 미수되어 있는 것과 오늘 토의하는 1,200만환을 부과하여 놓으면 몇 %나 징수할 것인가 하는 세세한 점을 들어가시고 보고하는 특별위원 5명을 조직하여 5일 이내에 본회의에 회부하여 거기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일은 당연히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되는데 그 위원회로 하지 않고 새로 5명의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5일 이내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거기서 가부를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삼청)

◇ 진복춘 의원

- 87년도 교육청 추가 경정예산이 심의된다하니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비

등하다. 그런데 여론을 종합해보면 학교를 짓자는 사람들이 많으니 원안무 수정통과를 할 것을 개의합니다.

◇ 이재홍 의원

- 아까 5명 추진위원의 지명은 의장에게 일임합니다.

◇ 명남철 의원

- 원안 무수정 통과하는 것은 무기명 단기 투표로 할 것을 개의에 첨가합니다.

◇ 진복춘 의원

- 그렇게 할 필요없지 않나요. 거수제로 합시다.

◇ 이재홍 의원

- 여기서 한번 부결되면 중앙국민학교는 영영 못 짓고 맙니다. 그러니 5명 위원회를 조직하여 세세한 점을 연구토의한 것이 좋겠다.

◇ 김영완 의원

- 이것을 4,5일 후에 통과한다고 해서 커다란 애로가 있다면 오늘 즉석에서 결정하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세세한 점을 연구하여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삼성 의원

- 동의에 찬성한다. 그러나 증축에 관한 세세한 점을 연구한 후 통과하는 것이 좋다.

◇ 진복춘 의원

- 명남철 의원의 무기명 투표제로 하자는 것을 받아 드리겠다.

◇ 김자홍 의원

- 일주일이 늦어지면 어떤 지장이 있습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 사무과장

- 호별세와 동시에 부과하여야 하는데 지금 늦어있다. 그리고 1일이 늦으면 그만큼 늦다.

◇ 이복주 의원

- 호별세 고지서가 벌써 며칠 전에 나왔는데 이것을 갑자기 통과한다는 것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며칠 간 잘 심의하여서 통과하는 것이 좋다.

◇ 박찬규 의장

- 개의집에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명남철 의원의 첨가를 받아들여서 개의 성립되었다.

◇ 김삼성 의원

- 개의집 무기명투표 먼저 표결하자.

◇ 박찬규 의장

- 개의 성립되어 투표하겠는데 투표용지에도 가부라고 기입하여주십시오.

◇ 김자홍 의원

- 비밀투표로 하는 것 너무 복잡하니 이 자리에서 5분간 휴회할 것을 긴급 동의한다. (재청이 없어서 긴급동의 폐기)

◇ 박찬규 의장

- 그러면 감표위원으로는 김팔용, 김창현 의원께서 하여 주십시오
(개표결과 가 8표, 부 7표로 가결)

◇ 박찬규 의장

- 그 다음 87년도제 2기분 부과금 부과율 결정의 건입니다. 예산에 수반해서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전원찬성)
그러면 4287년도 일시 차입의 건에 관하여 제안자 측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 서무계장

- 별지 설명서에 의거 설명하였음.

◇ 오세일 의원

- 이 공문으로는 제안자가 시장이 되었는데 설명은 교육감측에서 하십니까.

◇ 교육감

- 시의회에서 상정할 것은 전부 시장 명의로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 이재홍 의원

-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4청까지 하는 이 있음)

◇ 박찬규 의장

- 무수정 통과하자는데 4청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하는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전원찬동(만장일치가결)
지금 시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휴회하였다가 내 29일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 명남철 의원

- 우리가 몇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려면 일주일전에 제출하여달라는 것입니다. 29일날 상정하려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오늘 교육청회의를 열어놓고 29일날 또 회의를 한다 이러니까 행정부가 나쁘다는 것 입니다.

◇ 박찬규 의장

- 명 의원의 말씀 잘 기억하여 주십시오. 꼭 의회가 개최되어 가지고 의안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좀 행정부에서 민활한 활동을 하여달라는 것입니다.

◇ 김삼성 의원

-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무청 설치 운동 문제에 대해서 이부의장의 3신까지의 통신을 듣고 아울러 나 회장의 보고를 듣고 경하하여 마지 않습니다.
(장내소란)

◇ 김자홍 의원

- 방금 김삼성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전부에서 목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 선전을 하였으면 하겠습니다. 요즘 저이들 재정위원회에서 애원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마는 방금 김의원의 말씀과 같이 너희들이 운동하지 않아도 해무청이 목포로 올 터인데 그래 쫓느냐 하는 정도입니다. (장내소란)

◇ 박찬규 의장

-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끝이겠습니다. 장시간 토의를 하여 중대한 문제를 통과하여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 10분 휴회 선언)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서명 날인 함

의원 김창현

시의원 김영완

작성자 홍남식

제 35회 목포시의회 1차 회의 속기록

1. 일자

2. 개의상황 - 참, 불참

3. 개의선언

4. 보고

제 35회 속기록

5. 부의 안건 합의사항

◇ 박찬규 의장

- 의원제공께서는 목포시 변영과 13만 시민의 복리를 가져오기 위하여 주야로 건투하시고 계신 점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며 꾸준하게 건강에 유의하여 더욱 더 활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것으로서 간단하나마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그럼 14명의 참석으로서 성원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개회하겠습니다. 전차회의록 낭독하여 주십시오.

◇ 서기 박찬대

- 제 34회 제 2차 회의록 낭독하였음.

◇ 박찬규 의장

- 회의록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진복춘 의원

- 본 의원은 제 34회 때 불참석한 관계상으로 한마디 묻겠습니다. 수도권누수에 대하여 건설과장의 답변이 있었다는데 그 답변을 이 자리에서 낭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찬규 의장

- 부득이한 관계상 참석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저 사석에서 보십시오.

◇ 진복춘 의원

-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것 좀 낭독하는 것이 나쁘요.

◇ 박찬규 의장

- 그렇게 낭독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에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소. 그리고 만일 참석하지 못한다면 사무국에 가서 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낭독하여 주십시오

◇ 서기 박찬대

- 건설과장의 답변 낭독하였음.

◇ 박찬규 의장

- 그러면 이의없으면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감세교섭위원의 결과보고를 어제 도청에 갔다오신 교섭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동시에 동 자치행정예 관한 교섭결과 보고까지라도 연속해서 하여주십시오.

◇ 이재홍 의원

- 감세하고 동행정관계에 대해서 광주갔다 온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행 김삼성 의원, 오세일 의원, 김영완 의원, 본 의원 네 사람이 그제 광주가서 동행정관계 등을 놓고 광주에 갔다왔습니다. 마치 지사께서 육군병원 위문차 출타하여서, 동행정 관계를 놓고 지방과장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과장말씀은 다른 시군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는데, 어째서 목포만 이러한 문제를 말하게 된다는 것을 누차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삼성 의원이 영남지방, 각 지방은 자치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포시청에 호별세가 다른 시군에 할당보다 싸니까 백분지백으로 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정세가 부족하면 동정특별회계로 동정세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호별세를 많이 받아서 하면 좋지 않을 것이냐 하고, 말을 하고 있으면,

또 부동(富洞)에서 징수해서 빈동(貧洞)으로 융통해준다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될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빈난(貧難)한 동은 동정세를 전부 내지만, 부동에서는 전액이 증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도저히 동 운영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방과장께서는 영남지방 관계 등을 보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한 김삼성 의원의 말을 듣고,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곤란하니까 다른 시군이 모르게 해서 동정세를 과거의 동회비와 같이 시험적으로 한 3개월 시험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타합을 하여야 할 것임으로 행정책임자인 시장이 2,3일 내로 도청으로 나오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른 시군이 모르게 목포를 시험대에 노아서 이것이 잘 된다면 앞으로 각 시군에서 동행정을 하는데 윤택을 기하기 위하여 3개월 정도 시험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체적인 것은, 행정부 책임자이신 시장님께서 근일간 광주에 상도(上道-도청에 올라감)하시면 앞으로 좋은 타합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영업세 감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광주는 3,500세대에 목포는 2,500 세대이니, 1,000세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부과금 영업세액면으로는 광주가 상당히 고상합니다. 광주가 고상하기는 하지만 영업세에는 법인세, 개인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세금이 싸다는 것은 무엇이나 하면 법인이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목포에는 광주만큼 법인 기업체가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전목포 세무서장으로 있던 박홍재씨가 사세청 직세과장으로 있기 때문에 모든 처리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목포세무서장이 사세청에 올라도 배세액이 과하다고 떠드는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에는 자기가 좋은 곳으로 영전하기 위하여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하여 사세청의 배세액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온다는 말이 있는데, 직세과장의 말에 의하면 천부당 만부당 하다는 것입니다. 목포세무서장이 사세청을 오면 배세액이 과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는 말을 압니다.

그 다음 다른 시군 즉 광주 사세청 관내는 광주, 목포, 이리, 전주, 여수, 순천인데 다른 지방에서는 하등에 말이 없는데, 목포만이 수차 이러한 이야기를 압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목포가 과하니까 부당하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비교해서 목포에 실정이 그러하니 앞으로 목포에 영업세를 상당히 연구하여 여러분의 비위에 맞도록 잘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용당도선장의 잔교가 부서졌는데 건설과장께서 이것을 근 일간 나가서 잘 수선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도시 도정관계인데, 지금 각 도의원들이 자기지방에서 나온 벼를 자기 지방에서 도정하려고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지방에서 도정을 함으로써, 등재 만큼이라도 자기지방에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일간은 이러한 정도로 사 세청 내무국, 건설과 산업국, 양정과 이러한 정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광주 가서 우리가 활약하는데 김현기씨의 적극 협조하여주신데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행의 대표하여 이러한 정도로 경과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찬규 의장

- 경과보고를 듣고 우리 시의원 일동을 금반 상광(上光)하였든 네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자 여러 선배들에게, 잠깐 부탁말씀이 있습니다. 동 자치문제에 있어서는 금반 상도하여 가지고 결정을 보지 못하였지만 제가 듣기에는 이러한 약속을 하였으니, 이것은 절대 보도치 마르시고, 또 이 목포를 시험대로 놓겠다 그러니 이것을 널리 선전말고 목포만 가지고 한번 시험해봐 달라는 그런 말씀이, 그 가운데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도에 있어서는 이 동 자치문제에 있어서는 삼시간 보고를 마쳐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사위원장 신성모씨에게 보낸 감사문 발송보고를 하여주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지방해무청 설치운동의 활동상황보고, 연동 제방 소송에 관한 결과 보고, 석천호 진상조사보고를 연속해서 보고하겠습니다.

◇ 서기 박찬대

- 먼저 신성모에게 보낸 감사문 발송보고와 지방해무청 관계에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건의문 발송보고와 연동제방 소송에 관하여 별지보고서를 낭독하였습니다.

◇ 박찬규 의장

- 나달수씨한테 교섭결과의 보충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 잠깐 들어주시십시오.

◇ 상공회의소장

- 방금 이부의장께서 3신까지의 활동사항보고가 있어서 저로서는 다녀온 활동상황에 보충보고라는 것 없습니다마는 느낀 바를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금후일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여 말씀드립니다. 중앙에 국회의원 15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있으니, 목포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요지. 낙관적인 활동상황의 말씀이었습니다.

◇ 박찬규 의장

- 그 다음 제주도 갔다오신 김창현 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 김창현 의원

- 저 역시 13일 당지를 출항예정으로 배를 타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파관계로 해서 다시 중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3일 오전에 출발 예정이었는데 14일 오전 6시에 출항한다는 배가 7시에 출발하여 제주도에 저녁 7, 8시에 도착하여 그날은 쉬고, 그 다음날 제주도 경찰국장 신상묵씨를 방문하고 말씀하였더니 제주도 역시 해무청 설치에 찬동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설치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곳 사찰과장을 불러 우리의 취지를 말하고 적극 협조하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찰과장도 그것을 동의하기에 같이 나가서 역시 거기에는 누구보다도 도의회의장을 만나야 쓰겠다고 도 의회 의장을 찾았더니 나가시고 안계시오, 그래서 도청에나 갔나 하고 도청에 들어갔더니 도청에도 점심시간으로 나갔습니다, 그래 거기서 2시경에 산업국장을 방문하고 그 말씀을 하였더니 대단히 찬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도지사님을 만나, 취지를 말씀하였더니, 처음에는 찬동의 뜻을 표하더니 이것이 본도에서도 추진하지 안는다면 타항(他港)에 하는 것도 좋지만 본도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니 이것 경솔히 할 문제가 못된다고 말하고 만일 잘 못한다면 도민들의 원성이 대단할 것입니다. 그러니 총무과장이 서울 갔다가 10일경에 돌아올 것이니 본도에서 추진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도에서도 전적으로 찬동하여 도청은 물론 도민전체까지도 협조하여 목포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17일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해사국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갔더니 해사국장도 서울 가고 없어요. 그래서 선박과장과 해운과장을 만나서 우리의 취지를 말하였더니 그럴 것이라고 말하고, 기왕 목포에다 둔다 하니 제주도에 안되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합니

다. 그래 거기서 나와 가지고 읍에 가서 의회의장을 만나러 하였더니 의장이 서울가고 없어요. 그래서 부의장을 만났는데 마치 읍 의회 의원들이 너댓 분이 참석한데서 그런 우리의 취지를 말하였더니 그 분들도 역시 찬동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주도 출신 현 민의원이고 부사장이 도의원입니다. 그래서 부사장 역시 찬동을 해요. 그래서 그 후에는 자유당 위원장, 국민회장을 만나서 말씀하였더니 우리 도에 되지 않으면 목포에 두겠다는데 찬동하면서 제주도가 되지 않으면 목포에 둔다는 조건은 도민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도 찬동하고 있으며, 여수와는 연락하는 항구가 없고 제반위치가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일날, 도의회에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 날 걸려 가면서, 도의회의 결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중앙에까지 가려면 일주일이 경과될 것이니, 그리고 또 중앙에서 다른 지방에 결정하기 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별일 없으면 결정하라 하고 있는데 해사국장이 그날 아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취지를 말하니까 자기는 공무원으로서 가부를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들으니까 그분이 역시 여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장이 하는 말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도 도민들이 일을 잘못하였다고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총무과장이 오도록 잠깐 기다리라고 말하며 19일이나 20일경에는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20일오전 10시경에 총무과장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20일날 총무과장을 만나보니까 지방해무청 설치가 제주도에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목포에 둘 것을 절대로 추진하자고 말씀을 합니다. 그후 해사국장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 의장의 하는 말이 본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중앙에서 적극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있으니 만약 중앙의 국회의원들이 본도에 둘 것을 추진한다면 곤란하니까 25일 도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고 도의원이며 신문사 부사장은 사장에게 장문의 서면으로 본도에 둘 것인가. 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데 그것이 18일, 20일 까지 회답이 안왔습니다. 총무과장은 25일날 도의회에서 결의를 바가지고 간다든지 그 진정서를 두고 간다면 자기가 적극 추진하여 보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장에게 제가 가지고 간 건의서를 두고 갈 터이니 25일 도의회에서 가부를 결정하여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주도와 목포 관계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느끼는 바입니다. 처음 경찰국장을 만났을 때 감사장까지 보내려 하는 데 오셨습니다. 어디까지나 목포와 제주도는 친밀하여야 할 것인데 왜 그런 답니까 하시기에 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였더니, 먼저 번 제주도 사람들이 상선을 만이 타고 목포로 팔로 왔는데 목포에서 대단한 압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래상 목포와 제주도가 감상적으로 좋지 못하니까 제주도민들이 영암으로 항을 옮기라고 하여 건의서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서를 그 전 지사로 있던 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런 문제는 시의회에서 도 각 기관에 말을 하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그치겠습니다.

(12시 20분 김경현 의원 입장)

◇ 박찬규 의장

- 그 다음 석천호 관계조사보고를 정응표의원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 정응표 의원

- 여러분이 다 발서 알지만 그 배 비품과 그 배의 부속이 그대로 있느냐 없느냐가 논의되었는데 그런 것은 다 그래도 있었습니다.

◇ 박찬규 의장

-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었으면 하겠습니다.

◇ 정응표 의원

- 오늘 해무청 설치문제에 대해서 이소규 부의장의 3신까지의 내용을 듣고 보면 참으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해무청 설치불가능 이라는 것이 국회의원 150명의 날인을 바든 것은 참으로 민의원 몇 분과 번영회장, 상공회의소장, 이부의장의 눈부신 활동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노력을 심심히 찬양하고 적극추진 하여주신 정중섭 의원과 김성호의원, 유옥우, 신행용, 조병문 의원에게 지금까지 협조하여 주신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감사격려의 전보를 칠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찬성하는 이 있음)

◇ 박찬규 의장

- 대단히 좋은 동의였습니다. 그 동의에 재청도 있고 하였습니다. 이의없습니까.

◇ 진복춘 의원

- 제 33회 때도 역시 신성모 각하에게 감사문을 보내는 등 인접 민의원에게 감사문을 보내라는 것을 제가 발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의원에게 보낸 경과 보고가 없고 보니, 이런 것을 볼 때 실지가 좋은 발언이 되지 않고 나쁜 발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점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 박찬규 의장

- 그러면 곧 초안하여 가지고 몇 분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복춘 의원

- 석천호조사위원의 한사람으로 느낀 바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전부가 조사위원이 되어서 각자 보면 견해를 가지고 게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견해를 말씀하고 여기에 대한 건설과장의 답변을 바라는 바이며, 역시 건설과장도 석천호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하였기 때문에 해사국에 기계기술자를 모시고 석천호 기계를 검정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사국기계원은 이 기계는 부랑구가 부러졌으니 이것을 용접한다 하더라도 사용불능이라는 감정을 하였습니다. 더구나 이 노후선박을 수선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 것입니다. 그럼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은 이 선박을 운영케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김영완 의원

- 방금 진복춘 의원이 건설과장의 답변을 요청하였는데, 이것은 회의 규칙상 본회의에서 가결을 보아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은 어떠한 목적에서 건설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였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말씀하여 주십시오.

◇ 박찬규 의장

- 그런 것은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라 거반에 지명의원 전부가 석천호 조사를 하기로 하였으니까 전원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사하신 한 분으로써 좀 알아야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 김영완 의원

- 회의규칙이 엄연히 사라있는 이상 본회의의 가결을 본 후에 답변을 하도

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 이복주 실지 석천호 조사위원으로써 현장답변 하였습니다. 와서보니 역시 여러 본 의원께서 논의된 그대로 부랑구가 부러져 가지고 있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부랑구가 못쓴다니까 그 선체를 구입에 대한 총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하는 진복춘 의원의 심정 잘 알 것입니다. 선체자체를 조사결과 먼저 번에 진복춘 의원 발언한 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선체를 볼 때 물은 세지 않고 또 선체자체가 화물선으로 사용하는데 5년이나 10년은 사용하여도 좋은 종양(기종)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문제는 선박 구입시 출장하였던 명남철 의원이나 관계자는 아무런 부정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고 부랑구 자체가 부러져서 용접한 것을 샀다 하는 이 책임은 물론 져야 할 것인 문제인데, 그 배를 구입하여 가지고 상당한 해로를 운행하여도 하등의 지장이 없이 왔었다. 그렇다면 절대로 그 당시에 사러갔던 그 사람들이 돌려서 샀으면 샀지, 그런 자체를 알면서 선주와 결탁하였다는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랑구를 용접하여 쓸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왕 그렇게된 부랑구를 우리가 용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랑구 세 것을 사려면 10여 만환 든다고 하니 10여만환을 주고라도 새 것을 사서 써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저 배 자체 시가 110만환이나 120만 환으로는 살수 없는 형편입니다. 요즈음 이런 배를 구입하려면 2백만환은 주어야 산다고 합니다. 전문가 말에 의하면 그 선체가 수명이나 무엇을 보든지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 배를 사는데 잘못 샀다는 것은 구입차 출장하였던 분들의 책임이니 진복춘 의원의 질문은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지조사결과 이러한 결론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박찬규 의장

- 그렇습니다. 이복주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이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총무과장의 책임이니 그것을 건설과장에게 질문하는 것은 이 물품을 어떻게 갱신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였지만 각자가 이 물품구입 하는데 있어서는 이복주위원의 말씀과 같이 총무과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진복춘 의원

- 방금 이복주 의원의 말씀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건설과장에게 제가 질문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 질문이 좋지 못한 질문인가 대한민국 목포시에 목포시의 재산을 구입하는데 잘못이 있다는 것이지, 거기에 흑막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와 매주간에 좀이라도 결탁하여 구입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면 잘못 샀으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 현재 물건을 나는 검사원이 기계검정을 하였으나 사용불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복주의원의 기술면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배를 수선하는데 기계를 수선하려면 100만환이 안들면 안될 것입니다. 만일 이 돈으로도 수선이 완전히 된다면 하지만, 일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복주 의원 다시 말씀하여주십시오.

◇ 이복주 의원

- 진복춘 의원의 말씀에 의하면 좋지 못한 질문입니다. 진 의원의 질문은 질문 자체가 재정법에 의한 물자구입의 책임자가 누가 될 것인가. 그 한계를 명백히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배를 구입하려 갔던 사람들의 총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랑구의 고장을 알지 못하고 사왔단 것 같으면 근본적 문제로다가 그 배의 소관인 해사국에 부랑구가 고장이 되어 운행불능의 선박에 대한 허가를 하여주었다 하는데 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여 150만환이 들어야 살수 있는 배가 부랑구를 다시 용접해도 사용할 수 없으니, 이것을 어떻게 부랑구만이라도 수선하여 사용하라는 것이며, 진복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근본적으로 총무과장에게 재정법규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 박찬규 의장

- 이복주 의원 말씀 대단히 지당합니다. (폭소. 장내소란)

◇ 김영완 의원

- 석천호에 대해서는 다 같은 의사를 말하고 있으니 이상 토론을 중지할 것을 동의합니다.

◇ 진복춘 의원

- 이대로 토론을 중지하여서는 결국 석천호가 물에 놀지 않고 유달산에 놀

것입니다. 아까 이복주 의원의 말씀이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고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운행방법을 말씀하겠습니다. 역시 밥을 먹을 때 마음과 밥을 먹고 난 뒤의 마음이 틀립니다. 김영완 의원의 말씀도 좋다고 봅니다마는 한번 이걸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부랑구를 용접해서도 쓸 수 없다는 해사국 검사원의 검정을 하였다가는 것이 사실이니까 조선자(造船者-건조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기계를 육상에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육상에서 쓰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지금 영암에 25만환짜리의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5만환에 기계를 살 수 있었는데 차일피일 하기에 주인이 안된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 기계를 육상에 시설한다면 5만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배를 수선하기 위하여 그분한테 가서 그 기계를 사도록 노력하고 또 이런 기계를 그 사람이 인수하도록 하였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기계는 육상에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구리찌와 에어탱크(에어탱크)을 수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선하려면 30만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역시 기계는 앞으로 고쳐서 쓰게 할려면 곤란하니 이 기계는 혼쇠로 사용할 수 밖에 없고 부분적으로 부속만 팔더라도 4,5만환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였으면 영암에 있는 기계를 25만환에라도 구입해가지고 배에 놔 가지고서 운행하도록 하였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자는 것은 결론으로 필요없다고 하니까 맙시다.

◇ 김자홍 의원

- 의결부에서 세부적인 면까지는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세부적인 면은 어디까지나 행정부에 일임하고 이것으로서 중지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이재홍 의원

- 장시간 논의결과 이대로 중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재산을 구입하는데 갑론을박을 하지 않도록 잘할 것을 전제로 하고 이다음 모든 질의를 중지하고 앞으로 이 석천호를 잘 운행하기 위하여 김팔용 의원, 명남철 의원, 선박을 가지고 계신 진복춘 의원 세분을 중심으로 빨리 운행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에 참가합니다.

◇ 김영완 의원

- 석천호 문제에 직접관련이 있는 우리들은 될 수 있는대로 잘 운행하도록 노력한 것을 사실입니다. 모든 실정으로 보아서 물론 행정부에서도 이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만은 사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의결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김팔용 의원과 기계에 관련이 있는 명남철 의원과 진복춘 의원은 교체할 것을 재개의 합니다.

◇ 박찬규 의장

- 석천호 문제는 이것으로써 중지하자는 김영완 의원의 발언에 가부를 묻겠습니다.

◇ 김영완 의원

-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지명하겠습니다. 정응표 의원, 오세일 의원, 김팔용 의원을 하였으면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이 있음)

◇ 박찬규 의장

- 석천호를 재건하기 위하여 재건위원으로서, 김팔용 의원, 정응표 의원, 오세일 의원을 재건위원으로 하자는데 찬성하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가 9 표로 가결)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 건에 들어가겠습니다. 단기4286년 도 제 2 회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입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를 하여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복주 의원

- 교육예산질문도 가 중 하지만 더 긴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요즈음 목포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르고 있는 가축가운데 특히 돼지 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병의 진상을 알기 위하여 관계당국에서 이 병균을 색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아직까지 그 병균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병에 걸리기만 하면 죽은 현상입니다. 이러한 실정은 우리 축산업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 타격받고 있는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대단히 좋지 못한 사실이 오늘 이 시간에도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 목포시에 희망을 포기하고 있는 수육업자들이 시내에 많습니다. 그럼으로써 업자들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매일같이 값싼 돼지

를 사고 있습니다. 즉 종전에는 산돼지 한 근당 120-130환을 주고 사 가지고 2백환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돼지가 병이 든 것을 기회로 하여 한 근당 50환이나 6-70환에 사 가지고 도살업자들이 240환에 파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6,70환을 주고 사 가지고 도살청에 가서 도살하는데 부대 국채를 사고 축산동업조합에 천환을 바치면 도살하는 검사인을 맞혀줍니다. 그러면 이 고기를 사가지고 나와서 수육업자들은 근당 240환의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3배 이익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내장 피똥을 버리면 배 이상은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돼지를 집에서 잡을 생각은 있으나 사사로 잡으면 밀살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 50환 아니라 단 30환이라도 이것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업자들의 아우성은 점점 높아가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행정부에서 타협하여 근절시킬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의원들로서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시정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긴급동의 합니다. (재청 3청까지 있음)

◇ 박찬규 의장

- 산업과장 참석 말씀하여 주십시오.

◇ 산업과장

- 그런 실정을 근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축산업자들이 그런 불리한 입장에 노이지 않도록 곳 조사를 하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규 의장

- 그러면 긴급동의 성립이 되었으니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하는 분 거수하십시오 (가 10표로 가결됨)

◇ 김영완 의원

- 최근에 군경 유가족에 대한 학비 면제안이 실천에 옮겨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절대로 국가로서 이민족을 위한 남북통일이 성취되지 않은 이상 군경 유가족에 대한 학비 면제안의 내용은 대단히 기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농토를 8할이라고 하는 것은 점영하고 있는 농가에서 나간 노무자

유가족에 대해서 하등 어떤 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자 유가족에 대해서도 군경 유가족과 같은 특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겠습니다. 민주발전의 원동력이 된 제 2공화국을 양성하는데는 노무자들의 어린 자식들도 군경유가족과 같이 똑같은 학비면제하여 달아는 그런 건의문각 시 의회에 발송하여 가지고 우리와 동일보조를 취하자는 것을 요청하고 문교사회보건부 각 장관에게 이 건의문을 발송하기를 긴급동의합니다. (재청있음)

◇ 박찬규 의장

-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반 신문과 라디오에 의하면 지금까지 노무자동원이 영장을 발부하여 강제 비슷한 감을 주어왔는데, 금후에는 자유에다가 맡기기로 한다 그래서 자기가 일선에 와서 노무에 종사하겠다는 이가 있으면 지원제로 되었으니 김의원의 긴급동의에 좀 무엇합니다.

◇ 김영완 의원

- 자발적으로 지원을 한다 할지라도 군경들도 노무자와 같이 지원하여가서 전사하여도 유가족일 것이며 노무자도 자발적으로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노무자 유가족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제(自制)를, 산업과장께서 잘 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박찬규 의장

- 산업과장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장 군경 유가족에 대한 학비면제는 48년 5월 20일 문교부 고시 2600호로서 공포되어 현재 해당자에게 학비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 의회에서 상부요로에 건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찬규 의장

- 김영완 의원, 저 노무 관계자유제로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불원간 실시될 것을 전제로 하고 보류하였으면 어떻습니까

◇ 진복춘 의원

- 국회에서 자유노동법안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전사한 노무자유가족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제35회 목포시의회 2차 회의록

1. 개최일시 : 단기 4288년 3월 29일

2. 개의상황

1) 참석의원 12명 성립

박찬규의장, 정응표, 명남철, 김영완, 손백수, 김경희, 김자홍, 김창현,
이재홍, 이복주, 오세일 각 의원

2) 불참의원

이소규 부의장, 김삼성, 김남진, 임일남, 김팔용, 문택호, 김길환,
이문길, 진복춘, 김경현 각 의원

3. 개의선언 : 의장

(11시 20분)

4. 출석공무원 : 시장, 부시장, 총무과장, 산업과장, 사회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호병과장

5. 보고사항

※ 1차회의록 낭독 보충 수정

본 회의록 누락된 조항이 있음으로 차기에 낭독키로 동의
동의 제안자 이재홍 의원

재청 정응표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

※ 11시 40분 문신임 성장으로부터의 인사 말씀이 있었음

※ 목포 및 인접군 출신의원에게 감사문 및 격려문 발송 결과 보고

※ 공설운동장 설치 추진 위원회 회의 상황 보고

- 역원 수성건 조직에 이의가 없음으로 통과할 것을 동의
- 동의 제안자 정응표 의원 재청 있음
- 전원 거수 찬동 통과 가결

※ 석천호(石川號) 재건 위원회 회의 상황 보고

※ 개최시간이 각 의원의 지참 관계상 정확치 못함으로 10시 15분을 경과한
건 유회할 것과 불참 의원의 각성 촉구한 의미하 언론계에 발표 할 것을 긴
급 동의 (재청)

- 동의 제안자 김자홍 의원
- 전원 거수 찬동 가결

6. 부의안건

※ 목포시 공익전당포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 개정조례 원안대로 통과할 것
을 동의

- 동의 제안자 손백수 의원
- 전원 거수 찬동 가결

※ 목포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 조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 재청 3청 4청
- 동의 제안자 김자홍의원
- 전원 거수 찬동 가결

※ 수도 특별 회계 추가 경정 예산의 건

- 시민의 복리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3청, 4청
- 동의 제안자 손백수의원
- 전원 거수 찬동
- 폐회선언 의장

(하오 1시 1

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함

단기 4288년 3월 29일

의원 명 남 철

의원 김 자 홍

작성자 서기 흥 남 식

제35회 목포시의회 2차 회의 속기록

오전 11시 20분 개의 선언 (의장)

◇의장

-그러면 11명의 참석으로써 성원되었습니다.

- 지금으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 전차 회의록 낭독 하여 주십시오.

◇서기 박찬대

-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습니다. (낭독)

◇의장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응표

- 지금 회의록을 들어보니까 그날 질의한 사항이 많이 빠졌습니다. 실례를 들면 교육청 특별부과금에 대하여 교육감과 시장에 대한 질문도 빠져 있고 목포시내에 거액의 각종 세금이 부과되어 있는데 이 춘궁기에 1,200만원이라는 거액을 여기에 부과한다면 시장으로써 목포시민이 이러한 거액의 담세력이었다고 보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있고 시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빠져 있고 4, 30만원이 전년도 특별 부과금에서 감액을 데노고 있는데 이럴 때 징수 못하는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서무계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현재 중앙국민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중앙에 자재를 신청하고 있는데 수일내로 받게 된다는 교육감의 답변이 있었는데 빠져 있고 이 춘궁기를 피해서 가을에는 부과할 수 없는가 하도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이 있었는데 빠져 있고 그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 중요한 답변이 다 빠져 있다.

◇의장

- 그러면 속기록을 낭독할까요?

◇정응표

- 속기록을 낭독하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발언은 회의록에 있고 어떤 사람의 발언은 회의록에 안 쓰고 그러니까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가결 안 건만을 쓰면 다같이 쓸 일이지 어떤 사람의 질의는 쓰고 어떤 삶의 질의는 안쓰고 하는 것이 말도 안됩니다.

◇의장

- 회의록을 작성하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응표

- 어떤 사람의 말은 쓰고 어떤 사람의 말은 안쓰는 그런 회의록 나는 통과 못하겠습니다.

◇의장

- 그러면 정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수정하기로 하고 통과하였으면 어떠겠습니까?

(찬성하는 이 있음)

◇김창현

- 저 역시 발언이 빠졌습니다. 1세대에 6,000만환이 1,200만환을 부과하여 그렇게 된 것으로 회의록에 되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목포시에 현재 8,000만환이 부과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1,200만환을 부과한다면 9,000만환이 되니 15,000세대 잡고 6,000환이 되는데 그것을 징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재홍 의원

- 지금 정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회의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 회의에서 1,200만환을 시민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상당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 이것이 통과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기록하기 위하여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속기록에 있으니 다시 작성하여 이 다음 회의 때 오늘 회의록까지 통과하기로 하고 이 다음 문제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하는 이 있음)

◇의장

정응표의원의 발언을 수정하기로 하고 이 다음 회의때 통과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종결을 짓자는 것입니다.

◇정응표

- 제가 말한 골자는 그랬습니다.
- 거반의 교육청 관계를 무수정 통과하였다는데 대해서 목포 시민의 여론이 비등 하고 있으니 그 골자를 회의록에 내놓으면 다같이 내놓을 일이지 어떤 사람의 질문은 쓰고 어떤 사람의 질문은 안쓰고 이래서는 안되니까 그러니 이재홍 의원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의장

- 지금 신임 서장님께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여기에 와 계십니다.

◇서장 인사

- 의사진행에 대단히 분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시간 여유를 빌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반 정부 인사 발령으로 17일자 목포에 도착하여 그동안 귀 시의회 여러분에게 인사말 기회를 가질려고 하던 차 마치 오늘 의장님께서 연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인사의 말씀을 드린 것에 대단히 죄송히 생각합니다. 대단히 천학비재한 저입니다. 귀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여러분에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치안 책임자로서 시의회와 시민의 협조로부터 도로 수리와 가로등을 설치하여 뒀고 목을 밖에 하는 동시에 명랑하게 하겠다는 요지 인사가 있었음

◇의장

- 시 의원 제공(諸公)을 대표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임 초초하였는데 오늘 본도 경찰국장이 시의회와 앞으로 굳이 악수를 해주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다음은 목포 및 인접 지구출신 국회의원에게 보낸 감사문, 격려문

발송 요지 보고 하여 주십시오.

◇서기 박찬대

- 전문 격려문 발송 보고와 요지 낭독이 있었음

◇의장

- 다음 공설운동장 추진 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김영환 의원 수고 되시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 34회 의회에 공설운동장 설치 추진 위원회의 조직체를 보아 가지고 어제 그 추진 위원회가 소집되어 공설운동장 설치에 대한 모든 합의를 모아 여기서 거시적인 조직체를 본 것입니다.

조직체를 말씀드린다면(별기 명단 낭독) 그러니 본 회의에서 여기 조직체에 대한 동의를 하여 준다면 이로써 불원간 이 구성체의 회합을 볼 예정입니다.

◇의장

- 28일자 즉 먼저 시장실에서 우리 공설운동장 설치 추진 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그 구성체에 대한 합의를 보았습니다. 김영환 의원의 말씀과 같이 저런 형식으로 구성을 보았는데 본회의에서 좋다고 가결을 보아준다면 이 구성체를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정응표 의원

- 어제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심각한 토의를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조직체가 구성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본회의에서는 어제 조직체 그대로 하여도 좋다는 것을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의장

-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라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전원 찬동 가결)

- 그 다음 석천호 재건 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정응표의원

- 전반 본회의에서 결의를 본 석천호 재건 위원 세분 중 한 사람으로써 그 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지고 이 석천호 재건 문제를 토의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부랑구 고장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석천호를 부랑구를 용접해 가고 얼마는 쓸 수 있는데 까지 해사국과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용접하여 쓰다가 이것이 불원한 장래에 고장이 나고 본다면 전반의 명남철의원 같이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되니 이것은 안되고 먼저번에 석천호에 발동기를 사놓으려 하였는데 이것이 그 소유자하고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해서 우리에게 팔지 않겠다 하였는데 몇일 전에 소유자를 만났는데 팔겠다고 하니 발동기 25마력에 15만환을 주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산 갔다가 20일에 온다고 해서 1, 2일날에 영암기계를 가지로 가는데 시청기술자들과 같이 가서 다시 그 기계를 실지검사 해 가지고 시운전을 하여 그것이 된다면 현장에서 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 내용을 현재 시청 기관장으로 있는 그 분이 잘 안다고 하니 1, 2일날 가서 그 실정을 조사해 가지고 현장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가지고 오기로 결의를 보았습니다.

◇의장

- 대단히 다행한 일입니다. 25마력이 15만환에 주겠다는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다 하니 속히 기계 구입에 준비하여 주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의 안건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김자홍 의원

- 날이 갈수록 급수 부족으로 시민들은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가지 않아 고갈 상태에 빠지는 현실정인데 이 수도 급수를 천계천 월선리 물을 퍼서 올린다 하더라도 일주야에 1,000톤밖에 안올라오는데 지금 현상에 비추어 대단히 시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출석이 대단히 늦습니다. 지금 12시 싸이렌을 불고 있는데 언제든지 11시 이내에 회의를 시작한 일이 없고 또 지금부터 질의 안건을 토의한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성원미달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찍 나와서 한 시간이상을 기다리고 행정부에서는 의원들을 모시로 다니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10시 15분이 넘어도 성원이 안되면 유회할 것을 긴급 동의 합니

다.

(재청 하는 이 있음)

◇의장

- 긴급 동의 성립 되었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김자홍 의원

- 아까 말에 빠졌습니다. 언론계에 부탁해서 명단을 발표하기로 합시다. 신문을 보면 한물에 싸인 고기 같이 보도되는데 앞으로는 지상을 통하여 지명적으로 보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한지 모르나 우리는 문화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민국이라고 하면 모든 부수 조건이 있는데 그 부수 조건 가운데 시간 엄수로 두 번째 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십시오. 더욱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맡은바 업무는 그날 의결로써 결의를 보지 않으면 안되도 그런 안건이 났는데 이렇게 시간이 늦어서 개의를 한다면 일정이 변경되는 수도있고 하니 이런 의미에서 김자홍의원으로부터 이당 회의부터는 10시 15분이 경과 한다면 유회 하기로 하지 그러고 거기에 불참으로써 각성으로 촉구하여 하기 위하여 그 생명을 언론계에 부탁해서 신문지상에 발표하기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까지 있었습니다.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라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10표 가결)

◇이재홍 의원

-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긴급 동의는 7청까지 있어야 성립됩니다.

◇의장

- 오늘부터는 국정 그대로 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질의안건으로 들어가서 목포시영 공익전당포 조례 일부 개정의 건입니다. 제안자 설명하여 주십시오.

◇사회과장

- (축조설명이 있었음) 별지조례에 의거

◇명남철 의원

- 전반에는 1구당 1,000환이 지금은 1지구당 3,000환으로 되었는데 기본적인 수자를 느린것인가 기본 주수를 주린 것인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회과장

- 지금증자 하드레도 이것은 신년도에나 할까합니다. 당초 100만환으로 시작하였는데 현재 40만환 나가고 60환 남아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잘 조절하겠습니다.

◇손백수 의원

- 공익전당포 문제는 전반의회에서 통과할때도 상당한 논의가 되었는데 우리 목포 시민의 공핍생애 비추어 시에서 이러한 일을 해준것도 좋은 일이니 개정안 그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환의원

- 세대당 3,000환이 12,000환으로 되었는데 10,000환은 좋으나 끌어다가 어디서 나왔는가

◇의장

- 무수정 통과하자는데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라는 분 거수 하여 주십시오.
(만장일치 가결)

- 다음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건입니다. 제안자 설명 하여 주십시오.

◇손백수의원

- 될 수 있는데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 축조설명이 있었음

◇김자홍 의원

- 타도시와 비교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액은 아니다. 또한 현재 목포시의 급수 사정으로 보아서 어제는 수도 공사가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럼으로 예산면에 비추어 그런 정도까지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로 물론을어지 않으면 좋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실에 비추어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것으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3청까지 있었음)

◇이재홍 의원

- 수도료를 인상하자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목포시내에 물이 없어 대타격을 받고 있는 이 때 때를 같이 하여 물값을 인상한다는 것은 지금 누구든지 놀다지 않을수 없다. 왜냐하면 수도료가 인상된다고해서 물이나 잘나면 할터인데 물값만으로 오르고 물은 잘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것인가

◇이복주 의원

- 수도료 인상 할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방금 이재홍의원의 발언과 같이 시민들이 가장 호해 사기 쉬운 이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포 시민의 생명과 같은 이 물을 값다가 공급하는데 있어서 무론 수도료를 인상해 가지고 라도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면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찬성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나 그러나 만약 수도요금에 인상한 후에 어떠한 문제가 있냐하면 물은 지금의 형태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제일 먼저 목욕탕의 곤난이라는 것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 지금 목욕탕에를 가보니까 순전히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물이 무슨 물이냐 하면 순전히 샘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목욕탕 종전의 4,500환이 7,000환으로 경충 올라 간다면 거기에 수반해서 목욕으로 올라야 하지 물값만 오르지 않는 못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실정에 비추어 이것을 원안통과 하자는데 찬성하지만 시장께서는 지금 현재 기후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관상 대에 한번이니 문의하여 본이로어 있으며 언제나 비가 오는가 하는 문제도 생각하여 보았는가 또 좀 일직처 양수장을 사용해 가지고 1주야 1,000톤의 물이라도 퍼 올릴수는 없었는가 꼭 수도 요금만 인상하여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도를 생각하여 본일이 있는가 이러한 객관적인 문제를 좀더 빨리 해결할 수는 없었는가 그리고 요금을 인상하려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된 후 인상 하는 것이 워척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수도문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말하여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은 말하기를 수도를 그러느라고 물이 안나온다는데 언제쯤 물이 나게 되는지 하고 물을면 수원지에 물이 없으니 그런답니다. 하고 실정을 이야기 하여 준다면 그럼 앞으로 상태로 나간다 하더라도 1개월 정도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가 오시겠지요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들은 물 문제 때문에 시민들은 사경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죽교리에 사는 주민들은 저 유달산넘에 저수지에 조금 있는 물 그것을 짐을 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산비탈길을 걷고 있는 현상이며 또 어떤 곳에서는 먹지 못할 잔물을 이것이라도 허드레 물이라도 하기 위하여 수백명씩 거기에 모여서 물배급을 받고 있습니다.

- 두레박으로 세 개 다섯 개의 적은 물이지만 모인 사람은 섭섭치 않게 하느라고 물 배급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곳에서는 그전에 순전히 먹지 못한 샘물에 100환도 받고 50환도 받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이 수도요금이 오르면 시민에게 주더라도 좀 많이 주어야 할 터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재홍 의원

- 가사용, 공장용, 목욕탕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 공동 수도만 앓을리면 경정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김자홍의원

-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저수량이 3,500톤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10일이면 그 저수량이 완전히 고갈된다. 그러면 지금 월선리 양수장에서 퍼 올림으로써 1주야에 1,000톤인데 그것이 꼭 1주야가 퍼 올려 지나면 그렇지 않을 것이며 설령 1,000톤 오라 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4분지1 밖에 안된다. 그러면 지금 이 수도요금을 올린 이것이 월선리 양수장 복구 공사를 위하여 인상한 것인가 또한 이 양수장을 복구 하려면 100여만환이 들지 않으면 안되니 저 생각은 어리을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 3년 동안에 강우량 통계표가 건설과에 있어서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거기 통계표를 본다면 어제밤 목일에는 내일 비가 내린다 라고 났습니다. 3년 동안의 통계표를 본다면 5월 중순 내지 5월 하순에 아니오면 별 비가 없습니다.

또 지금 공설수도에 있어서는 요금 인상 안되겠다 하였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일반 가정수도는 좀 요금이 올라도 좋지 않는가 그것은 자기 집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직부터 급수난의 대책은 없었는가 하길 말씀이 있었는데 사전방지를 위하여 실은 다른 곳에서는 24시간 물을 주었는데 목포 지금까지 24시간 물을 준 예가 없습니다. 많이 주어야 12시간반 그것도 안되어서 9시간반 그것도 안되어서 7시간반 그것도 부족해서 3시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3시간 줄수가 없어서 격일제로 하였습니다.

- 지금 현재 저수량이 목포에 물이 들어오는 날까지 앞으로 70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수원지에 17만톤이 있는데 4수원지하고 3수원지간의 송수관이 하나인 관계로 4수원지 물을 전적으로 먹지 못하고 있는데 3수원지 물을 먹게 되면 앞으로 70일은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난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목포에 양수기 기술자가 5명 있는데 그중 한분은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고 나오다든 네분은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제 광주간 것은 여기저기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산이 통과한다면 1,000톤의 물이 물가으로에 지금 현재 달산 수원지가 목포 물의 7할을 담당 하고 있는데 달산수위지 물이 떠러건 뒤에 양수만을 한다면 1일 500톤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포에 물이 잘나오지 않습니다.

◇손백수 의원

- 시내에 급수문제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포도 오래동안의 한발로 말미암아 물 소동이 나 있는데 난 것으로 끝일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을 예측하고 언제든지 수도 급수 문제를 사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니 그런데 언제든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건설적인 개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갈수기에 처해 있는 이 때에 신설 정오의 개책과 기설 정오라

도 많이 복구하여서 앞으로 수도 급수의 갈수를 사전 방지해서 정오 개책에 많이 힘써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시장

- 급수 수도료를 인사하는데 있어서 마치 때거 나쁘다 나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수기를 통해서 할에는 것이 아니었으며 진직 인상 할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였습니다. 또 현재 목포역 1일 120톤의 물을 데여주고 있으며 순천철도국과도 교섭을 해오는 동안에 물문제가 심각 함으로써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100만환 들어서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입니다. 실은 그래서 시민의 부담이 적게 할려고 노력 하여왔으나 그것이 실천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 시민이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 그 다음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기술면에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양수기 기술자 5명중 1명이 나와서 일을 해보겠다고 하니 그런사이라도 우리가 기술을 알 수 없으니까 초빈 하여 시험해 볼 태세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에 비교해서 인상가격이 다른 시보다 염합니다. 지금 시기가 나쁘지만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비가 계속해서 내리지 않으면 하루에 1,000톤이라도 올려야 하겠습니까.

- 비가 오지 않으면 얼지점으로 모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도 연선에서부터 경비부 장교까지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공설수도를 시설하여 가지고 물을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이 2,3개월 먹을 양 밖에 없기 때문에 시기는 나쁘지만 이러한 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전원 표결 할 것을 요청)

◇의장

- 손백수의원의 말씀하신 정오 말씀입니다. 기설 정오와 신설 정오 문제에 있어 가지고 생각한 바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회과장

- 기설 정오와 신설 정오에 있어서는 신년도 예산에서 보아야 하겠습니까.

◇의장

- 그러면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무수정 통과 하자는데 4청까지 있어서 성립 되었습니다. 다른 의의 없으시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 라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 전원 찬동 가결
- 다음 수도 특별 회계 수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제안자측 설명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 추가경정 예산서에 의해서 축조설명에 있었음

◇김자홍 의원

- 지금 역시 수도 누수가 심한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일정시대는 시에 수도공이 12, 3명있고 자전거도 비치하여 가지고 어디서 수도가 터지고 누수가 있다면 곧 자전거를 타고 와서 긴급한 태도를 취하였는데 지금 제가 본 견지에서는 어디가 누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시에 수도공을 2, 3명 가지고 누수 방지에 하등의 대책이 없으니 직원으로 좀더 써서라도 수도 누수급 고장에 진택하여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 과거에 왜정 때도 인원이 많아서 수도 고장 및 누수에 만전을 기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데 실은 과거에는 수도를 목포에서 시험하였습니다. 즉 목포시내에 수함 시험과 철관 시험을 두어지고 전부 목포에서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해아후 지금 목포시내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공이 4명있는데 4명으로는 목포 시내 수도 고장 긴급 방지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88년도에나 인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수도계 TO관계로 직원을 늘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반에 시장님께서도 중앙에 가서서 말씀하였습니다. 88년도에는 직원을 좀 늘리겠다는 말씀 하였습니다.

◇손백수 의원

- 우리가 급수 주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 하였는데 이것은 물론 수도 특별 회계 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 성이 있으니 급수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 해서 시민의 복리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서 이 안건이 나왔 습니다. 그러니 하루 속히 하여주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 니다.

◇의장

- 조례 개정안을 통과하였으니깐 간연히 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되어 있으 니 원안대로 통과하자는데 여러분께서 다른 이의없으신 것 같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데 4청까지 있어가지고 동의 성립 되었습니다.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라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10표 가결)

◇김자홍 의원

- 현재 모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모래가 썩어있다. 그리고 노래를 굴어는데 모래가 적어서 굳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아스팔트가 깔고 묻어지지 않는다. 모래를 좀 큰 것으로 굴이면 쓰겠다.

◇건설과장

- 지금 노라는 수선중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 싶이 그것을 만든지가 36 년 되어서 고무기야가 도저히 쓸수 없다. 그런데 그 고무기야가 한국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알루미늄 공장에서 지어부서 가지고 깎아서 그 제 시운전을 하여 보았는데 세루모다가 고장이 나서 시험을 못하였다. 그리 고 아스팔트가 깡깡해서 굳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원조물자를 받은 것이니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아스발트 1드람에 중유 한깡식 타서쓰고 있다. 그런데 이 아스 팔트가 깡깡한 것이 있고 무른 것이 있는데 깡깡한 것은 하층 공사를 하는 데 쓰고 물은 것은 표침공사에 쓴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에 가보니까 광주는 순전히 물은 것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포치와 광주치는 100드람을 교 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썩은 모래를 사용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표층 공사에는 모래가 조금 나빠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의 가격은 물은 것 은 1드람 6,000환, 깡깡한 것은 1드람 당 3,500환입니다. 그래서 100드람을

우리가 실가서 가지고 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재검토 하겠습니까.

◇의장

-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가옥일제 조시에 한한사 승인을 요청하는 거고 생략

(전원 승인)

(폐회)